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풍영정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제1777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6월 2일 (음력 4월 17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土)	3(日)
한두차례 비	흐린후 갬
17 / 23℃	18 / 26℃

News

-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②
- 광주 병역특례업체 수사 ③
- 韓축구 오늘 네덜란드전 ⑱

Jeollado

- 그 사람-오병문 前 장관 ⑦

Entertainment

- 퀴즈 프로그램 뜬다 ⑧
- 한국 빛낸 영화 다시 볼까 ⑨

Books

- 유교 2,500년의 여행 ⑩
- 영화 속 사진 들춰보기 ⑪

Wellbeing

- 식품 탐구-참외 ⑬

Sports

- 야구장 숨은 스타들 ⑲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성공 스토리

3년만에 50억대 매출 "브랜드 '무안' 힘이죠"

지난 2005년 6월. 유통서비스 전문회사인 'GS리테일' 고위 간부 앞으로 한 통의 소비자 항의 메일이 전달됐다. '왜 맛있는 무안 고구마를 팔지 않고, 맛없는 고구마들만 매장에 놓아두었느냐'는 요지였다.

무안지역 농산물 판매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GS리테일 송파점에서 첫 판매행사를 연 직후였다. 소비자의 항의로 '무안 고무마'의 경쟁력을 확인한 GS측은 곧바로 송파점에서 무안 고구마를 정식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김성두(45)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사장은 "수도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최고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행운을 거머쥔 셈"이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후 무안황토랑유통공사는 매출이 급신장했다. 지난 2004년 8월 자본금 2억5천만원으로 시작한 지 3년 만에 50억원대 누적 매출액을 올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최고 품질만 고집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이처럼 짧은 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안이라는 지역 상표를 새롭고 강력한 브랜드로 키워내고 판로를 개척한 김 사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 그리고 열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안 몽탄이 고향인 그는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차그룹 회계·해외마케팅 분야에서 14년여를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회사를 그만뒀다. 김 사장은 지난 2004년 4월 서삼석 무안군수에게 무안지역 농산물 판매 전문 유통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무안군이 1억1천만원, 6개 생산자 단체가 1억4천만 원을 출자해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출발했다.

빨간 양파즙 히트

김 사장은 현대차에서의 근무경험과 유통공사 출범 전 김, 백련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구축해 놓은 영업망을 활용, 무안의 고구마와 양파, 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판매처와 물량이 확정되면 생산작목반과 접촉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확보했다. 생산작목반에는 일반 유통업체보다 갑절의 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전략은 그대로 적중해 수도권 매장에서 무안황토랑 상표를 붙인 고구마는 10㎏에 3만2천원 선에 팔리고 있다. 다른 지역 고구마보다 3천원 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전국 최고 가격이다. 또 김사장의 아이디어로 빨간 양파를 가공해 즙을 낸 '빨간 양파 엑기스-레드미'는 한 해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김 사장은 "지난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무안황토랑'이라는 브랜드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제품의 질이 결합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장애물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황토랑유통공사 김성두 사장이 무안 황토골휴게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수도권에 판매되고 있는 백련차 등 지역특산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안=위직량기자 jrwi@

춤추는 로봇 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광주정보통신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미니로봇 댄스'를 관람객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이 전시회는 3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

내달부터 경유값 ℓ당 35원 인상

LPG는 ㎏당 39원 내려

7월1일부터 유류 세율조정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이 1ℓ 당 35원 정도 인상된다. 반면 LPG(액화석유가스)부탄 가격은 1㎏당 39원 낮아지고, 휘발유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 1ℓ에 붙는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은 현재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격 인상 폭은 2.95% 수준인 35원으로,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평균 1천184원 수준이던 경유 평균 소비자가격이 1천219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LPG 세율은 반대로 1㎏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줄어 LPG 가격 역시 1천265원에서 1천226원으로 39원 내려간다. 휘발유 세율과 소비자가격은 현행 744원, 1천434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집권땐 기자실 원상복구"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서 국정홍보처 폐지도 주장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및 일부 부처의 기자실 출입금지 조치 등과 관련, 한 목소리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과 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 차례로 참석, 기조연설과 토론 등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집권시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전 시장은 "기자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언론자유 쟁취에 노력해 달라"고 했고, 박 전 대표는 "6월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안되면 정권교체를 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현 정권에서 실행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와 관련, 이 전 시장은 "홍보처는 필요가 없다. 정치적 목적은 절대 금물"이라며 "해외업무가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과 정권의 이념과 치적만을 일방 홍보하는 선전기구는 폐지하되 대신 대한민국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세계적 권위 인증 품질 보증!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
SGS 국제품질 ISO 9001 인증
SGS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 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Q 중소기업 우수제품인증
KGMP 우수의료용구 제조업체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대리점 사업본부 02)538-9388
무료상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십시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
광주 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전국 점망
서울 서울삼일호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 02)2276-0587~9 서울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 02)3477-5110 서울송파2점(송파제일 앞)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3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시민회관 앞)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 032)517-5110 수원점(남문 앞) 031)246-5110 의정부점(로얄로터리 홍국생명 앞) 031)821-6655 안양점(백신쇼핑 2001 아울렛 앞) 031)469-0110(1평택점(평택역 앞) 031)658-5110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 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영탑로터리)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 055)297-6060 대구 동인점(동인나거리) 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 053)426-1511 남일동점(이수테마극장 옆) 053)425-7575 경북 포항점(죽도거리) 054)244-5110 안동점 구.안동농고네거리) 054)859-2248 광주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지하상가입구) 061)752-8845 전북 전주점(북로터리) 063)232-5728 군산점 구.시청건너 앞) 063)446-0198 익산점(조자랜드거대거리) 063)838-5600 남원점 (시장네거리) 063)632-2626 대전 대전점 (도청 앞) 042)254-5110 대전점(충충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 041)553-2888 공주점 (공주큰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 현.충북대 구.속리산고속 맞은편) 043)222-1177~8 충주점(성원로터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 033)253-5110 원주점(지하상가로터리) 033)745-4516 제주 제주점 (명장로터리) 064)753-4358